

제언

간호교육과 실무에 관한 단상

대학에서의 개강은 늘 한 계절의 끝자락에서 시작한다. 2학기 이즈음 유난히 출석점검이 빨리 끝난다. 그 한여름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사뭇 다른 이 내 느낌은 중도 포기자수에서 비롯된다. 그 결정의 주체가 학생 본인이라는 사실에 직면하면 4반세기 넘는 교육경력을 앞세워 상담하던 나는 그만 무안해진다. 이런 저런 주변소리에 귀 여린 저학년보다 배낭여행 경비·외국어 연수·그저 자신의 젊은 노동가치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도 적지 않은 반 학기 등록비와 시간을 미련 없이 버리는 고학년 앞에선 당황하고 만다.

우리사회 변화의 격동기에서 간호학 입문은 한동안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또 한동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향한 이상향으로서 선진국 해외취업의 관문이기도 했다.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입학 배경이 되어 주는 것처럼 취업배경이 되어준다. 다른 전공 학생들 보다 간호학 전공학생들은 취업에 대해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마도 졸업 후 학생들을 기다리는 의료기관이라는 현장이 넓어서 일 것이다. 실제로는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에 75%정도만 배치되고, 25%정도는 비의료기관에 분포하고 있음을 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입학 때처럼 대학 졸업 후 취업도 동아리의 흐름에 대개 따른다.

그렇지만 입학 후 전공에 대해 능동적으로 숙고하듯이 의료기관 취업 후 직장의 존속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고하는 시기가 있는 듯하다.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발행된 대한간호학회지 등 5개 학술지에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29세 이하 연령층이 70%에 육박하는 반면에,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와 보건진료원·학교의 보건교사·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등은 31~40세 연령층이 50%를 상회하는 2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단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들은 약 6~7년 후가 되면 의료기관



정 문 희 교수
한양대 의대 간호학과

에 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그만 두거나 하는 시기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비 의료기관 즉 전문분야 간호사들의 연령이 의료기관에 비하여 고령화되어 있고 이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 암시된다.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수가 많아지면 환자의 입원기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업장에 간호사의 수가 많아지면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좋아진다. 실무현장과 간호사간의 이와 같은 역학관계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강수명을 늘려야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간호사는 부응해야 하므로,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시사점은 문제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

현행법상 간호의 전문분야는 약 16.4%에 이르지만 간호학계나 단체의 노력으로 앞으로 더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산하에 지금 태동하고 있는 10개 영역(산업, 가정, 지역사회, 정신, 노인, 마취, 응급, 중환자, 감염관리, 호스피스)은 일반인 조차도 간호사에게 더 정밀한 전공을 묻고 이를 이용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주역은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실무에 임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정작 이들이 이와 같은 역할에 대해 전망할 줄 아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로 결국 돌아가게 된다. 특히 전문분야는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취업하는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가? 학부 교육은 자신의 적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는가? 실무를 쌓고 나서야 전공과 소신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건 아닌가? 다른 직종을 통해 간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교육과 실무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시키고 있는가? 간호학도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역할을 의료기관 간호실무수행자로서만 이해하고, 자신의 좋은 세계 안에 교육·상담·자문·협동·조정·연구·지도·변화촉진·윤리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입력하지 못한 채 졸업하고, 취업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한 셈이다.

한편, 실무현장의 기존 인력에게도 앞서 지적한 특정 시점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 나름대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철저한 추후관리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각종 자격과 인증을 통해 간호실천능력을 개선하는 간호사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기관과 인력 양자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자아발견이 점점 뚜렷한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과연 무엇을 목표로 어떤 변화가 주어져야 할까? 산업보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능력을 겸비한 소신 있는 적정수의 간호사가 상시 확보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개강에 즈음하여 나는 내 학생들과 같은 한여름방학을 보내지 못해 착잡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이에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내놓는다. 